

## J. J. 톰슨 - <낙태에 대한 옹호> Part 3

○ ○

6. 우리는 두 종류의 사마리아인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하나는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기억하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누가복음 10:25 - 37)

선한 사마리아인은 일부 대가를 치르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는 경우의 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즉, 사제와 레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적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마리아인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것은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물론 정도의 문제이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차이점은 아마도 키티 제노비스 사건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마도 기억하겠지만, 키티 제노비스는 지켜보거나 듣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38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해당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살인자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썼다는 전제 하에 탁월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38명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드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마리아인은 최소한 경찰에 전화라도 하는 자이며, 이조차 하지 않은 목격자들은 괴물같은 자들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예수는 "너도 가서 그렇가 하여라"라고 말하였다. 어쩌면 예수는 도덕 법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하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예수는 사람들에게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이건, 38명 중 그 누구도 목숨을 걸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으며, 그 누구도 인생의 긴 기간동안 - 9년이건 9달이건 간에 - 을 바쳐 어떠한 특권도 갖지 않은 (특권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물론, 한 가지의 두드러진 예외를 제외하면 어떤 나라의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정도의 헌신을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지 않는다. 예외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여기서 나의 주된 걱정은 낙태에 대한 법의 상황이 아니지만, 이 나라의 그 누구도 어떤 상황이건 간에 다른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마리아인이 될 의무가 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그 어떤 법도 키티 제노비스가 죽어갈 동안 지켜보기만 한 38명을 기소할 수 없다. 반면, 이 나라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여성이 태아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강제된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명령하는 많은 유럽권 국가들과 같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현 상황에서 거대한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여 준다. 또한, 낙태의 비범죄화를 막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위험임을 공포하기 위해 행동하는 단체들은 보편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들이 악의를 갖고 행동한다는 오명을 써야 한다.

나 자신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마리아인 법과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법이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닌, 누군가가 어쩌면 본성에 의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강요되는 상황에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제삼자의 개입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응당한 권리가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는 희생이 목숨 그 자체를 수반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매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이런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 낼 수 없을때라면 어떨까? 만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떨까? 나에게 우리가 이를 들어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납치된 채로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누워서, 그와 함께 보내야 할 9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당신만의 삶이 있다. 물론 유감의 감정이 들지만, 바이올리니스트의 삶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희생할 수는 없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한다. 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당신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당신의 막대한 희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요구한 바를 해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가해지는 부조리는 없다.

7. 낙태반대론자들의 규정을 받아들여, 나는 그동안 태아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으며, 태아가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부터 낙태가 부조리하다는 결론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물어 왔다. 그리고 나는 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해 왔다.

물론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단지 그중 틀린 주장을 반박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태아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닌, 산모가 어머니라는 사실로부터 특수한 종류의 책임이 생긴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그동안 했던 유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이런 특수한 책임이 없으며, 헨리 폰다는 나에게 특수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둘 다 자신들의 아이를 보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적 책임에 관심을 돌려야 할 수도 있다.

나는 4단락에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다루었으나, 요점을 반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건, 암묵적으로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특수한 책임"이 없다. 만일 부모가 임신을 막고자 시도하지 않았으며, 낙태를 하지 않았으며,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들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아이에게 권리를 준 것이며, 따라서 단지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생명을 대가로 보살핌을 멈출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아이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피임 수단을 취했다면, 존재하게 된 아이와의 생물학적인 관계는 부모가 아이에 대한 특수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할 수도, 책임을 거부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만일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막대한 희생을 대가로 한다면, 그들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희생이 매우 클 경우에는 탁월한 사마리아인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헨리 폰다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나를 보러 서부에서부터 날아올 것이다.

8. 낙태찬성론자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의 주장에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첫째로, 비록 나는 낙태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 항상 허용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산모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마리아인의 자세만을 요구하는 상황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넘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나는 나의 주장의 장점이 정확히 보편적인 찬성이나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직감은 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아프고 공포에 질린 14세 여학생은 당연히 낙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법은 미치광이 법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우리의 직감은 또한 낙태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비도덕적인 경우도 있음에도 동의한다. 해외여행을 연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7개월째에 낙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산모도, 시술을 한 의사도 모두 비도덕적이다. 만일 내가 개진한 주장이 모든 종류의 낙태, 혹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모든 종류의 낙태를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였다면, 이는 처음부터 의심을 자아냈을 것이다.

둘째로, 비록 나는 일부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는 태아를 죽일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계까지 태아가 산모의 몸 밖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 탓에 두 주장을 혼동하기 쉽다. 태아를 산모의 몸에서 제거하는 것은 태아의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나는 당신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9개월간 침상에 누워 있을 도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결이 끊긴 후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면, 당신이 그의 목을 그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것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연결을 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모종의 이유로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이지 않는다면, 바이올리니스트를 죽일 권리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주장의 이런 측면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어떤 여성은 아이가 생긴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해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산모는 태아가 단순히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바랄 것이다. 일부 낙태반대론자들은 이런 낙태의 이런 측면을 혐오하며, 따라서 절망의 강력한 원천에 무감각해한다. 어쨌거나, 나는 만일 분리된 아이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죽음에 대한 욕구가 누군가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에서 태아가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가정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낙태는 당연히 살인이 아니며,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떤 것에도 해당사항이 없다.